



책, 그 성(聖)과 속(俗)- 책의 시작에서 중세까지



김준목*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문자의 사용이라 말할 수 있다. 인류는 문자를 발명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homo sapiens), 즉 사유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사유의 시작은 문화와 문명을 태동시키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이다.

문자의 기록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BC5000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초생달이라 불리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설형문자이다. 그 점토판 문자에 이어 BC3000년의 이집트와 BC2000년 중국에서 각각 히에로그리프(성스러운 문자)와 한자를 만들었다. 문자의 발명은 기록의 보관을 위해 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인들은 문자를 부드러운 점토판위에 기록한 후 불에 구워 테라코타의 도기 형식으로 구워서 보관했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가의 파피루스에 고대 중국인들은 죽간의 형태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고대 서양에 있어 문자가 기록물의 형태로 활기 있게 만들어지

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커다란 갈대 파피루스의 사용이다. 이들은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어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책을 그리스어로 biblos(비블로스)라 하는데 이는 이집트의 파피루스papyrus에서 유래된다. 책을 의미하는 bible(성서) bibliothecae(도서관) bibliophile (애서가) 등의 단어도 다 이집트의 papyrus에서 유래된다. 한편 불어의 livre(책) 이나 library(도서관) volume(책/권) 등의 단어는 라틴어 liber, libellus, volumen(이상 모두 "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한편 고대, 중세에 있어 문자의 기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소수 권력계층의 전유물로서 그들의 종교와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문자를 담은 책은 경전으로 신성시 되거나 국가권력내지 신분계층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중세에는 적들의 피부로 책을 만들어 자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중세에 이르기 까지 수사본(manuscript) 즉 손으로 기록 되었으며 이는 노예와 수도사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한권의 책을 완성하는데 수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들은 식사만을 제공받고 일체

* (안띠꾸스) 주간, joonmok2000@yahoo.co.kr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외부와는 통제된 상태에서 필사에만 몰두해야 했다. 또한 이들이 책 한권을 만들기 위하여 소모되는 양피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백 마리의 양이 죽어갔다. 책을 만드는 비용이 이리 하니 당시 책 한권을 갖기 위하여 귀족들은 자신의 넓은 영지를 내 놓아야만 했다. 지금 같으면 책 한권의 가격이 일산신도시와 바꿀만한 가치를 갖고 있었다.

각 시대별 책의 재료 및 형태

a. 구약성서 시대 BC4000 - BC3000

우리는 돌 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석판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는 것이 최초의 기록형태라 말할 수 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앗시리아의 사람들은 점토판 위에 뾰족한 막대를 이용해 기록을 남겼다. 또한 당시 그 밖의 방법으론 wax slate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나무에 구멍을 파서 왁스를 부어 굳힌 후 그 위에 날카로운 철필로 글을 썼다. 글을 다 쓴 후에는 철사를 달구어 왁스를 평평하게 밀어 다시 사용하였다. 당시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이집트에서는 나일강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를 얇게 썰어 가로세로로 겹쳐 물을 부은 후 무거운 것으로 눌러 말린다. 이 위에 글을 쓴 후 레코드 테이프처럼 말아 보관하였는데 긴 것은 길이가 40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정부가 통제하였으며 이집트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b.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가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는 당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벨룸(vellum)의 사용을 촉진시켰다. 벨룸은 암소나 들소의 기름진 피부를 말하는데 이는 세월이 흐르면 쉽게 부서지는 파피루스보다 질기고 내구성이 강하였다. 단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는 카이사르 시절부터 서점을 갖고 있었는데 아르길레툼(argiletum)이라 하여 서점을 위한 특별구역을 설정해 놓았다. 서점에서는 스크롤형태로 책을 팔았는데 철학, 드라마, 시, 과학, 역사 등의 다양한 책이 팔렸다. 당시의 인기 작가로는 호메로스(Homeros), 끼케로(cicero), 가토(Gato), 호라투스(Horatus) 등이 있었다. 책의 제작은 하나의 원본을 읽으면 동시에 20-40명의 필사 노예들이 글을 받아쓰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수사본에는 많은 실수가 발생했다. 여하튼 로마말기에는 두루마리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코덱스(codex) 형태의 책이 나왔다. 코덱스의 발명은 두루마리를 읽는데 화가 난 제사장이 책을 조각조각 썬 선별로 자르게 하여 이를 호트러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썬선별로 실로 묶어 만들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c. 중세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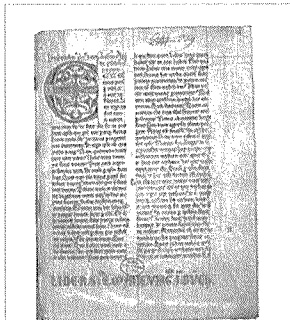
그리스 로마이후 5세기 후반에서 15세기까지 거의 천년세월 동안 중세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 기간동안 출간된 책의 90%가 종교서적이며 이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필경사는 수도사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종교서적은 당시 종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금박으로 칠하고 수를 놓았으며 각종 보석으로 치장

되었다.

또한 미니어처(miniature)라 하여 글자의 첫 글자나 책의 가장자리를 화려한 그림으로 채색한 최고의 예술이 나타났다. 이러한 책들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 책 선반이나 서가위에 채인으로 묶어 보관하였다. 책들은 자신의 고귀

함을 도적맞지 아니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지금도 양피지에 각종 보석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된 책과 쇠사슬이 묶인 채 보관되어 온 책은 북 컬렉터의 최고 수집대상 품목이 되고 있으며 가격은 수억을 호가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잠언 주해. 13세기 양피지에 쓴 수기본 필사기의 수직입에서 행간과 공백부를 덧붙이기 위한 도움선이 보인다.

9P

요한 콧투와 페터 쇠피가 펴낸 금속활자본 1450년, 두렌두스의 《신의 형식의 원리》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와 마찬가지로 장식과 주서는 인쇄를 마친 뒤에 필사기의 필사기들이 수직입으로 완성했다.

〈13세기 중세의 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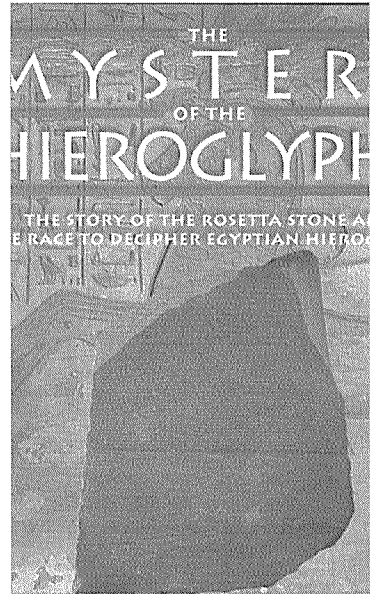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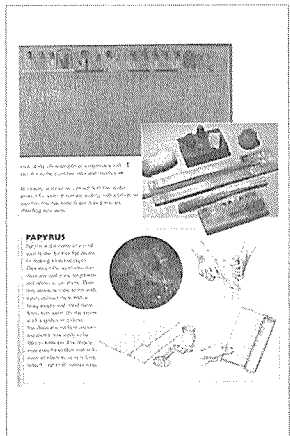
놓고 읽었음을 한 뒤 책장을 열었다. 또 비밀스러운 계시의 실재를 불리하기 위해 성서를 필하는 사제들의 손가락도 보석으로 장식하였다.

성서가 신성의 거처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두루마리 책을 돈 목서들의 이런 양이 도처에 출현하고, 책의 활자마다 신성의 일점이 스며들었다. 예수의 삶을 책의 제작과정에 깃대의 살명하기도 했다. 말풍과 책을 통한 구원사의 비유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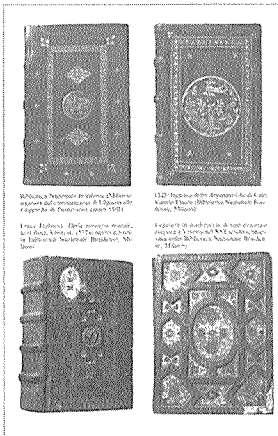
〈돌위에 새겨진 십계를 받는 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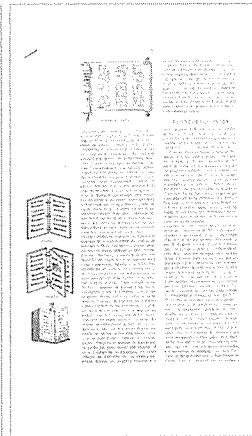
〈로제타 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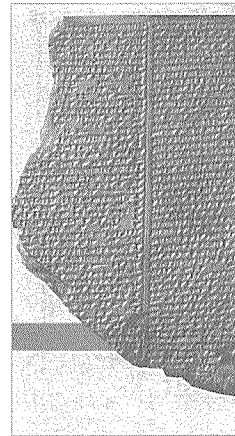
〈파피루스 종이 만드는 법〉



〈중세의 화려한 장식〉



〈왼쪽:코덱스, 오른쪽:두루마리〉



〈점토판-길가메쉬 서사시〉